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우성



난세다. 박연차·장자연 양대 리스트, 공직사회 비리, 경기침체 장기화에 슬럼이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은 공포 얼어붙어 백수들이 즐비하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747'(7%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은 꿈도 꾸지 못할 허상이 되고 말았다.

亂世, 길을 물을 지도자는 없는가

'위당소리'와 '낯술'을 보기 위해서다.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찾지 못한 국민들이 이들 영화에서 위안을 얻고 있는 셈이다.

위당소리, 낯술에 기댄 국민

청와대 행정관의 성 접대 의혹사건, 공직자들의 영세민 복지에 산 뼈물리기 등 어느 구석 하나 상한 곳이 없는 듯하다.

낯술은 한 청년 실업자의 나 홀로 여행에서 겪는 분변을 그린다. 작금의 실직 사태를 영화로 승화시켜냈다.

삼탕이어서 불쌍한 국민만 안쓰럽다는 생각이다. 각종 개발정책이나 부동산정책은 수도권 위주에 그치고 있고, 지방은 떨거지 대접이다.

국민마음 결집할 지도력 절실

대통령이 참으로 국가브랜드를 높이려면 자기성찰부터 해야 한다. 교회 장로의 어법으로 '회개'다. 후보시절 국민의 위대성을 들먹이고 취임 때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들 영화가 인기를 누리는 것은 회망을 주거나 경제난을 해결해줘서가 아니다. 갑달할 수 없는 불안함과 보살펴 달라는 호소가 함께 스며있는 사회분위기의 반영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김래원



1년 넘게 공석 중이던 광주 시립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구자범씨가 위촉되었다. 항상 광주시향의 문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던 필자는 물론 시향의 발전과 음악적 성숙에 대해 고민하던 클래식 애호가들에게는 대단한 호재라고 할 만하다.

러라니 상당히 의미심장한 느낌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광주시향으로서 말려 교향곡의 연주처 처음이 아닌가 싶다.

말러를 만나러 가자

오페라극장의 수석 상임지휘자라는 그의 경력을 떠나, 놀랍게 그가 광주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처음으로 선택한 곡은 말러의 교향곡 제1번 "거인"이다.

은 관의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시민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할만한 전문가 집단의 양성, 공연 기획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니. 그리고 여기에 빠져서 안 될 것은 바로 행정자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마인드이다.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협박·신고까지 해서는

얼마전에 필자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고객이 차 접촉사고를 냈다며 긴급히 연락이 와서 출동을 했다. 서둘러 쫓아가 보니 앞쪽 헤드라이트만 살짝 깨진 경미한 접촉사고였다.

하더라는 것이다. 하지만, 고객은 술을 마신 채 아니고 짐에서 취주를 타다 나온 통에 온 몸에 소주냄새가 배어 있었다고 한다. 결국, 경찰을 불렀고 고객님은 술은 전혀 마시지 않은 채 확인돼 경찰은 그냥 돌아갔다.

기고 조병석



2010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또다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불붙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95년 여·야간 변화적인 법 개정으로 기초의회 정당공천은 다시 폐지됐고, 2005년 선거법 개정으로 또다시 부활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기초지방단체장과 기초의원에게 정당 공천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1천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 온상이면서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를 중앙 정치권에 예측시키는 반(反) 지방자치의 핵심인 것이다. 또한 중앙 정치 구도가 지방선거까지 좌지우지해 풀뿌리 생활 자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벚꽃축제 말고 무궁화축제 하자

올해도 여는 때처럼 전국적으로 벚꽃축제를 했다. 여기저기서 각종 축제와 행사준비 소식이 전해졌고 관광 여행업계도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에 벚꽃축제를 즐김 관광객을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붙여놓고 영업을 한 결과 수많은 사람이 오갔다.

무궁화를 전국적으로 심는 캠페인을 벌여서라도 무궁화축제를 해마다 열었으면 좋겠다. 국화(國花)는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곧 나라의 얼굴이요 얼이다. 그러므로 국화를 봐도 그 나라의 국민성이나 역사를 읽을 수 있다.

우리 전남 지역에서는 광양과 구례에 많은 사람이 다녀갔다고 한다. 하지만, 벚꽃은 벚꽃에 매달려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이 물러드는 걸 보면 슬직히 좀 마뜩찮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회단체가 나서서 장기적인 시간과 인력을 가지고 무궁화축제를 준비해 나가자. 무궁화가 꽃축제를 열기에는 상업성이 부족하다면 이따나 무나 기타 다른 꽃으로 대체해 주길 바란다.

시설

洞 주민센터 보안 이렇게 허술해서야

요즘 광주시와 경찰의 체면이 많이 아니다. 광주에서 하룻밤에만 동 주민자치센터(옛 동사무소)3곳이 탈리라는 등 일주일 사이에 모두 5곳에 도둑이 든 것이다.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1곳도 아니고 5곳에 '연쇄적으로' 도둑이 들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광주에서 탈린 동 주민센터는 복구 3곳과 동구 2곳, 8일 저녁과 11일 새벽에 1곳씩 털렸고, 13일 밤부터 14일 새벽 사이에는 인접한 동 주민센터 3곳이 차례로 도둑의 표적이 됐다.

다라서 광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점검을 해야 한다. CCTV 설치 등 물론 이거니와 취약 시간대 직원 순찰조를 운영하거나 건물 외부 보안장치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北 무모한 '벼랑 끝' 전술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이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에 반발해 향후 6자회담에 참가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한이 사생결단식 반발을 보인 것도 바로 이런 때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무모한 도발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자충수일 뿐이다.

이런 안보리 의장 성명은 '결정'과 '요구'를 담고 있어 사실상 결의안에 준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성명의 실행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북한의 6자회담 불참 선언으로 북핵은 인한 경제곡면이 쉽게 타결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졌다. 정부는 이런 때일수록 신중한 언어와 태도로 처분하고 의견하게 대처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無等鼓

무안의 (주)범우라는 중소기업이 백련·양파·단호박 등 지역 특산품을 재료로 면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내놓아 화제가 됐다.

아말로 최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범우의 활약은 '속터지는' 농업인들에게 모처럼 용기를 주는 당보가 아닐 수 없다.

벤처 농업

문가들의 주장에 절로 수긍이 간다. 농업 현대화의 주된 동력은 농업의 벤처화다.



지자체에서 시장에서 출시된 라면·국수·주제비 등 다양한 면제품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문이 쇄도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안울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농업의 현대화'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절로 수긍이 간다.

우리 농업이 홀대받아온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농자지천하대본(農者天下大本)'이라는 수어에서 무색할 정도다.

면가루가 판치고 있는 견고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우리 농업이 홀대받아온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曹度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인